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칼빈의 신약의 구약 사용 이해:

고린도전서 2:9를 중심으로

Calvin's Understanding on the Use of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Focused on 1 Corinthians 2:9

송영목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목차

들어가면서 | 41

1. 고린도전서 2:9에 인용된 구절의 정체 | 44

2. 칼빈의 이사야 64:4 주석 | 45

3. 칼빈의 고린도전서 2:9 주석 | 46

4. 칼빈의 고린도전서 2:9의 이사야 64:4 사용 이해 | 48

나오면서 | 52



칼빈의 신약의 구약 사용 이해: 고린도전서 2:9를 중심으로

이 글에서는 신약과 구약 사이의 통일성에 주목했던 칼빈이 “어떻게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계시사적으로 해석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보려고 한다. 이 글은 칼빈의 신약의 구약 사용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을 잘 보여주는 ‘고전 2:9의 사 64:4 사용 연구’로 제한한다. 그런데 고전 2:9는 여러 가지 이유로 쉽지 않다. (1) 주동사가 없다. (2) 전후 문맥(즉 8절과 10절)과 어떻게 조화되어야 할지 분명하지 않다. (3) 두 번 나타난 관계대명사 ἃ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4) 첫 단어인 접속사 ἃλλ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5) 바울은 구약의 어떤 구절을 인용하는가? 칼빈이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변호하면서(구약 선지자에게 암시적이었던 내용을 신약 기자가 명시화했다는 논리에 근거함) 기독교적 해석을 신중하게 한 것은 비판 받을 일이 아니다. 그러나 칼빈이 기독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구약 본문을 적극적인 해석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신약 저자의 구약 사용 시에 발생한 변형의

이유를 ‘기독교론적’(Christological) 혹은 ‘기독교완결적’(Christotelic)으로 설명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평가할 수 있다.



*Calvin's Understanding on
the Use of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Focused on 1
Corinthians 2:9*

주요어

칼빈, 신약의 구약 사용, 고린도전서 2:9, 그리스도 중심, 계시사

Abstract

Calvin's Understanding on the Use of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Focused on 1 Corinthians 2:9

Prof. Dr. Young-Mog Song

This paper aims at responding to the question "How would Calvin, who paid much attention to the unity between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understand the OT in terms of a Christocentric perspective within revelation history?" This research, however, is limited to Calvin's exegesis of 1 Corinthians 2:9, which quotes Isaiah 64:4. This researcher proposes that this passage clearly shows us Calvin's way of understanding the use of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A proper interpretation of 1 Corinthians 2:9, however, is not an easy task due to the following reasons: (1) no main verb appears, (2) its enigmatic harmony with textual context in particular verses 8 and 10, (3) interpretation of the relative pronoun ἃ that appears twice, (4) interpretation of the first word, conjunction ἃλλά , and (5) the identity of the specific Old Testament verse which Paul quoted. No one can easily criticize Calvin, who defended the continuity of the two Testaments by developing the argument that the NT authors revealed the implicit content of the OT authors. Concerning Calvin's understanding of the use of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however, he deserves at least two criticism: he neither actively interpreted the OT passages Christologically, nor provided us with the proper reasons why the NT authors changed the OT passages by quoting them in the light of a Christological or Christotelic perspective.

Keywords | Calvin, Use of the OT in NT, 1 Corinthians 2:9, Christocentric, Revelation history

들어가면서

16세기 위대한 성경 주석가 존 칼빈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와 그의 제자 오리겐으로 대변되는 풍유적 해석을 거부하고, 본문의 문맥이나 문학적 기교를 고려하면서 문자적 의미 혹은 자연스러운 의미를 찾고자 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신비로운 해석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사람이 그 지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스스로 인간의 언어 수준에 맞게 낮추셨기 때문이다. 칼빈은 (원저자이신 성령님과 인간 저자의 의도를 찾는) 합리적인 문법-역사적 성경 해석의 기초를 놓았다. 구약의 기독교적 해석과 관련하여, 칼빈은 과도한 혹은 근거 없는 기독교적 해석을 반대하고, 대신에 구약의 역사적 맥락을 강조하면서 기독교적 의의(적용)를 균형 있게 살리려고 했다. 구약의 역사적 의미와 기독교적 적용의 균형은 칼빈의 메시아 시편 해석에도 나타난다. 또한 칼빈이 ‘오직 성경’(Sola Scriptura) 혹은 ‘성경의 유추’(Analogia Scripturae)라는 원리는 본문의 중요성을 인식했음을 암시한다. 칼빈은 문맥은 물론이거니와 간본 문성도 고려했다. 그는 예를 들어, 한 본문을 해석할 때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다른 본문으로 해석했다(예. 시 50:13; 사 34:7). 또한 의미가 모호한 본문은 더 분명한 다른 본문으로 해석했다(예. 수 23:10; 사 17:9). 그리고 어느 한 표현을 일반적인 용례에 비추어 해석했다. 즉 어떤 표현에 대해 같은 저자가 성경 다른 곳에서 쓴 표현이나(예. 사 37:32; 사 9:7), 아니면 다른 저자에 의해 쓰인 유사한 표현(예. 호 9:14; 눅 23:29)에 주목했다. 칼빈은 성경 해석에서 독자를 고려하는데, ‘성령님의 내적 조명’은 독자의 마음 안에서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는 사역이다. 하지만 칼빈은 사람의 한계로 인해서 성경

해석에는 어느 정도 상대성이 있음을 인정했다.¹⁾

이 글에서는 신약과 구약 사이의 통일성에 주목했던 칼빈이 “어떻게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계시사적으로 해석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보려고 한다.²⁾ 이 글은 칼빈의 신약의 구약 사용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을 잘 보여주는 ‘고전 2:9의 사 64:4 사용 연구’로 제한한다. 그런데 고전 2:9는 여러 가지 이유로 쉽지 않다. (1) 주동사가 없다. (2) 전후 문맥(즉 8절과 10절)과 어떻게 조화되어야 할지 분명하지 않다. (3) 두 번 나타난 관계대명사 ἃ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³⁾ (4) 첫 단어인 접속사 ἃλλ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⁴⁾ (5) 이 구절에서 바울은 구약의 어떤 구절을 인용

1) 임용섭, “칼빈의 성경해석학적 공헌,” *개혁논총* 12(2009), 118-39.

2) 칼빈은 『기독교강요』 2.10.1에서 ‘신약과 구약의 통일성’을 언약의 입장에서 강조한다. 언약의 ‘집행 형식’(혹은 ‘시여 형식’, *mode of dispensation*)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성경의 모든 언약은 실제적으로 동일한 은혜 언약이다. 물론 칼빈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에 주목하는데, 시여 방법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도에 있어서의 차이이다. 즉 구약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숨겨진 분’ 혹은 ‘부재한 자’로 소유했는데,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의 부재가 아니라 아직 육체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의미로서의 부재이다(참고, 칼빈의 벤전 1:12 주석).

3) Erasmus, Estius, Meyer, Heinrich, Edwards 등은 고전 2:9의 관계대명사 ἃ를 7절의 동사 λαλοῦμεν의 목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반면에 Hofmann은 9절을 7절과 연결시키는 대신에 새로운 사상이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ἃ가 의존하는 동사는 10절의 ἀπεκάλυψεν이라고 보면서, 10절의 시작을 헬라어 문장 성분의 순서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에게 그러나” 대신에 “계시하셨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였다면 더 논리적이라고 설명한다. F.L. Godet, *Commentary on First Corinthians*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1985), 142.

4) 이 문제들에 대한 Frid의 해결책을 들어보자: 9절의 ἃλλὰ를 7절의 ἃλλὰ의 반복으로 보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다. 이것이 옳다면 7절의 동사 λαλοῦμεν이 (9절의) 선행사로 역할을 하고, (9절의) 관계절은 λαλοῦμεν의 목적어로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런 설명보다 더 간단하고 적절한 해결책이 있다. 9절의 표현을 ‘타원형 방식’(elliptical mode)으로 보는 것이다. 즉 8절과 9절을 연결하는 ἃλλὰ로 시작하는 9절은 8절과 반대되는 것을 언급한다. 그리고 8절에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에 대한) ‘무지’가 다루어지기에 그 반대인 ‘지식’은 9절에서 다루어진다. ‘지식’이라는 단어가 9절에 등장하지 않기에 이 견해가 설득력이 없다고 반대할 수 없다. 왜냐하면 9절의 첫 단어 ἃλλὰ가 ‘무

하는가?

문맥을 간단히 살펴보면, 고전 2:9가 포함된 고전 2:6-10은 지혜와 신자들이 이 지혜를 수용함 혹은 불신자들이 지혜를 거부함이라는 주제를 다루는데, 고전 1:18-25에 나타난 대조와 병행을 이룬다. 그 다음 고전 2:11-16은 성령님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삼단논법으로 대조시켜서 상반된 반응을 상술 한다: (1)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려고 하지 않는다면, 오직 그 사람 자신의 영만 자신의 생각을 안다는 대 전제(*major premise*)는 하나님에게도 적용 된다(11절). (2) 성도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이데올로기를 의미하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자기 안에 모시고 있다는 소전제(*minor premise*, 12a). (3)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성도는 적어도 성령님이 계시해주시는 만큼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 한다.⁵⁾

지’(ignorance)에 대한 반대를 암시하고, ‘지식’(knowledge)에 대해서 언급하는 뒤 따르는 10절이 (본문 비평 상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파피루스 46과 B사본 등이 지지하는) γάρ로 시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울은 고전 2:9절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강력한 반의 접속사 ἃλλὰ로 시작함으로써 8절과 대조시킨다. 그 다음 바울은 곧바로 “이 시대의 통치자들(예. 가야바, 빌라도, 그리고 그들 배후의 마귀의 권세)은 몰랐지만, 우리는 안다”라는 요지로 넘어가지 않는다. 대신에 추가적으로 σοφί α를 설명하는 일련의 관계절들(a series of relative clauses)의 형식으로 된 구약 인용을 삽입한다. 7절의 ἡν이 ‘통치자들이 몰랐던 것’의 목적어를 가리킨다면, ἃ절은 반어접속사 ἃλλὰ 때문에 그 반대 내용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의 목적어를 가리킨다. 그러나 바울은 9절을 관계절들을 목적으로 삼는 ἐγινώκαμεν으로 마무리 하지 않는다. 따라서 Frid는 고후 2:8-10을 다음과 같이 번역 한다: “This wisdom none of the rulers of this age knows - for if they had known it they would not have crucified the Lord of glory - but, as the words of Scripture say, things which eye never saw, and ear never heard, and never entered into the mind of man, (all the) things that God prepared for those who love him, (we do know) because to us God revealed them through the Spirit.” 참고. B. Frid, “The Enigmatic ΑΛΛΑ in 1 Corinthians 2.9,” *New Testament Studies* 31(1985), 603, 606, 608.

5) C.L. Blomberg, *1 Corinthians*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94), 63-64.

1. 고린도전서 2:9에 인용된 구절의 정체

바울이 “기록되어진 바와 같이”라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전 2:9에서 정확하게 어떤 본문을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 칼빈처럼 로마의 클레멘트 (AD 96)는 자신의 ‘고린도인에게 보내는 편지’ 제 34장에서 바울이 사 64:3 LXX를 따랐다고 보았다. 반면에 오리겐 (AD 185-254)은 자신의 마 5:29 주석에서 바울이 ‘엘리아의 묵시’를 참고하여 인용했다고 보았다. 제롬(AD 347-420)은 바울이 사 64:4와 65:17을 혼합해서 인용했다고 본다.⁶⁾

최근 학자의 경우 혹자(예. Kistemaker)는 사 65:17, 64:3 LXX 그리고 렘 3:16의 혼합으로 보며, 혹자(예. Klaus Berger)는 바울이 묵시 자료를 사용했다고 추측한다. 하지만 바울이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로 시작하기에 의경이나 유대 묵시 문헌이 아니라 구약을 염두에 둔 것이다. Thiselton은 고전 2:9에서 바울의 구약 사용을 ‘a pastiche of biblical allusion’으로 본다.⁷⁾ Garland는 고전 2:9를 사 64:3 LXX에 기초한 해설(paraphrase)로 본다.⁸⁾ Witherington은 바울이 사 64:4와 65:16 LXX로부터 인용할 때, ‘인용’과 ‘주석’을 구분하지 않고 ‘역동적인 동의어’(dynamic equivalents)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⁹⁾ Grosheide는 고전 2:9의 전반부에는 사 64:4가, 후반부에는 사 65:17이 인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본다.¹⁰⁾ Blomberg는

6) Godet, *Commentary on First Corinthians*, 143-44. 바울은 종종 구약 본문을 복합적으로 인용했다(예. 롬 9:33의 사 28:16과 8:14; 롬 11:26-27의 사 59:20과 27:9).

7) A.C. Thiselt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NIGTC; Grand Rapids: Eerdmans, 2000), 250-51.

8) D.E. Garland, *1 Corinthians*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2003), 97.

9) B. Witherington 3, *Conflict and community in Corinth: a Socio-Rhetorical Commentary on 1 and 2 Corinthians* (Grand Rapids: Eerdmans, 1995), 127.

10) F.W. Grosheide, *Commentary 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NICNT; Grand Rapids:

고전 2:9가 사 52:15(“이제 그가 많은 민족을 놀라게 할 것이니, 왕들이 그로 말미암아 놀라 입을 다물고,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볼 것이며,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다”)와 64:4의 인용 및 해설이라고 본다(또한 Chrysostom[AD 349-407], Theophylact[c. 700]).¹¹⁾ 바레트는 바울이 사 64:3 LXX과 65:16을 인용한 것으로 추측하면서도, 바울이 자신의 ‘기억’에 의존한 관례로 아주 부정확하게 인용하려 했거나, 아니면 현재의 본문과는 또 다른 사 64장과 65장의 본문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¹²⁾ 하지만 여기서 현재의 본문과 다른 본문을 바울이 사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칼빈의 이사야 64:4 주석

MT(사 64:3)	LXX(Rahlfs; 사 64:3)	NIV(사 64:4)	바른 성경(사 64:4)
מִמֶּתַח וּמִתְּהוֹמוֹת לֵב אִישׁ וְלֵב אִשָּׁה לֹא רָאוּ אֶת עֲשָׂוֵי יְהוָה כִּי הָיוּ לֵבָבָם כִּי הָיוּ	ἀπὸ τοῦ αἰῶνος οὐκ ἤκου σμεν οὐδὲ οἱ ὀφθαλμοὶ ἡμῶν εἶδον θεὸν πλην σοῦ καὶ τὰ ἔργα σου ἃ ποιῇ σεις τοῖς ὑπομέ νουσιν ἔλεον ¹³⁾	Since ancient times no one has heard, no ear has perceived, no eye has seen any God besides you, who acts on behalf of those who wait for him.	주님 외에는 자기를 기다 리는 자들에게 이같이 하 신 하나님을 옛적부터 아 무도 듣지 못하였고 귀로 들어 본 적이 없으며 눈으 로 본 자가 없습니다.

이 글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칼빈이 사 64:4에서 문법-역사적 해석에 기초하여 기독교론적인 의미를 찾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한다. 칼빈은 사 64:4에서 이사야가 과거를 기억하고서 더욱더 담대하게 변함없으신

Eerdmans, 1984), 66.

11) Blomberg, *1 Corinthians*, 64.

12) C.K. 바레트, 『고린도전서』(국제성서주석;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5), 97.

13) 다음은 LXX의 영어 번역이다: “From of old we have not heard, neither have our eyes seen a God beside you, and your works which you will perform to them that wait for mercy.”

하나님의 도우에 호소하는 것으로 묘사한다.¹⁴⁾ 이사야는 과거에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신 하나님의 일은 들어본 적이 없는 비상한 일임을 상기시킨다.¹⁵⁾ מִי־יָכֹל을 대격(“아무도 그런 하나님을 들어본 일이 없나이다 ...”; 참고, 바른 성경) 혹은 호격(“오! 하나님, 눈이 보지도 못하고, 귀가 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당신만이 홀로 당신을 찾는 자들을 위하여 항상 역사하심을 알고 있습니다”)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호격’(vocative)으로 해석하는 것을 선호 한다.¹⁶⁾ 비교접속사(as)를 넣어서 이해하면 더 쉬운데, 이사야는 죽은 우상과 비교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사역을 강조한다고 본다. 따라서 כִּי עָשָׂה(행하다)는 절대적 의미를 가진다. 결론적으로 칼빈은 신학적으로 사 64:4를 창 17:7의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의 관점에서 해석한다.¹⁷⁾ 분명히 칼빈은 나름대로 역사-문법적 해석에 근거한 언약 신학적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칼빈은 사 64:4를 주석할 때 고전 2:9는 언급하되,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연결시키지 않는다.

3. 칼빈의 고린도전서 2:9 주석

GNT	NIV	바른 성경
ἀλλὰ καθὼς γέγραπται· ὁ ὀφθαλμὸς οὐκ εἶδεν καὶ οὐς οὐκ ἤκουσεν καὶ ἐπὶ καρδίᾳ αὐτῶν οὐκ ἦν νοήματα, ὅτι οὐκ ἔστιν ἡμεῖς· ὁ θεὸς τοῖς ἀγαπῶσιν αὐτόν.	However, as it is written: "No eye has seen, no ear has heard, no mind has conceived what God has prepared for those who love him"-	기록되어 있기를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였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였다.

14) J. 칼빈, 『이사야 IV 주석』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3), 360.

15) 실제로 사 64:3-4에는 흥해가 갈라지고(출 14:21-22), 엘리야를 통해서 불로 응답해서 비를 내리신 사건(왕상 18)이 암시되어 있다. 이것은 이방 신들이 흉내 낼 수 없는 여호와와의 고유한 사역이다.

16) 칼빈, 『이사야 IV 주석』, 93.

17) 칼빈, 『이사야 IV 주석』, 362.

중세의 성경해석의 특징을 4중 의미를 찾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4중 의미 중에서 풍유적-영적 해석의 힘이 막강했던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칼빈이 성경 해석에 기여한 바를 ‘문법-역사적 해석’ 정립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칼빈은 고전 2:9에서 문법-역사적 해석을 정당하게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또한 바울이 사용한 사 64:4를 칼빈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중요하다. 칼빈은 바울의 말이 이사야서에 일치하지 않게 잘못 적용하고 있다고 본다.¹⁹⁾ 그리고 מִי־יָכֹל의 격(대격 혹은 호격) 문제를 다시 다룬다. 대격은 다음에 나오는 히브리어 3인칭 동사와 어울린다고 볼 수 있지만, 더 설득력 있는 호격으로 볼 때, 인칭 변화는 선지자들에게 흔히 발생하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칼빈은 바울이 사 64:4에 없는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ἐπὶ καρδίᾳ αὐτῶν οὐκ ἦν νοήματα)이라는 말을 첨가한 이유를, 비록 이사야가 시청각만 언급하고 있을지라도, 그는 함축적으로 마음의 모든 능력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한다.²⁰⁾ 그러므로 칼빈은 바울이 이사야에게 암시된 것을 명시적으로 드러낸 것이지, 새로운 것을 창안하여 첨가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특이한 점은 바울은 고전 2:9 주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의 언급하지 않고, 사 64:4의 기능에 초점을 둔다는 사실이다. 칼빈이 자신의 사 64:4 주석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해도, 고전 2:9 주석에서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유리한 계시사적인 새로운 문맥을 더 부각시킬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점은 의아하다.

18) 바레트의 설명을 들어보자: “바울은 이러한 보화가 하나님을 아는 즉 지식을 지닌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린도에서는 이렇게 말한 사람이 많았을 것임)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라고 말한다(참고, 고전 8:3). ‘영지’가 아니라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숙과 영성의 표준이다.” 즉 바울은 영지주의적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바레트, 『고린도전서』, 98.

19) J. 칼빈,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주석』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3), 92-93.

20) 칼빈,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주석』, 94.

4. 칼빈의 고린도전서 2:9의 이사야 64:4 사용 이해

칼빈은 바울이 고전 2:9에서 사 64:4를 ‘다르게 설명’할 뿐 아니라, 다른 목적에 따라 ‘곡해’하고, 심지어 이것을 ‘다른 말로 인용’한다고 본다.²¹⁾ 그 이유를 바울이 MT가 아니라 LXX를 따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MT와 LXX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사 64:4의 ‘귀, 눈’의 순서가 고전 2:9에서 ‘눈, 귀’ 순서로 바뀌었다고 해서 이 두 본문 사이의 간본문적 연결 고리를 끊지 못한다.²²⁾ 왜냐하면 이런 현상은 고대에서 수용된 인용 및 해석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고전 2:9의 “마음에 떠오르다”(go up onto the heart)는 히브리어 관용어인데(עַל־לֵב, על-לב), 사 64:4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사 65:17에는 있다. 이 이유로 혹자는 바울이 사 64:4와 65:17을 혼합해서 인용한다고 본다. 하지만 고전 2:9와 사 65:17 사이의 두 가지 차이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1) 이사야의 시제는 미래이지만, 바울의 시제는 아오리스트이다. (2) 이사야는 ‘사람의 마음’(고전 2:9)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라고 쓴다.²³⁾ 시청각 동사와 관련하여 큰 차이점은 MT가 3인칭 복수 동사로 쓴 반면에, LXX는 1인칭 복수 동사로 썼다(참고. 바울은 3인칭 단수 동사를 씀). 그리고 LXX는 복수형 ‘눈들’(eyes)이라고 쓰지만(바울, NIV 그리고) MT는 단수형(eye)으로 쓴다.²⁴⁾ 문장의 시작에 MT는 접속사로 시작하지만, LXX는 그것을 생략한다. 하지만 MT와 LXX 사이에 의미상 결정적 차이는 없는 듯하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바울이 이사야의 예언을 ‘곡해’했다기보다는 ‘변형’했다고 보는 게 좋을 듯하다.

21) 칼빈,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주석』, 92-93, 360-61.

22) 사람의 인지 기관들인 눈, 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계획을 알 수 없다.

이것은 곧 일반은총의 한계이다. Witherington, *Conflict and community in Corinth*, 127.

23) R.E. Ciampa & B.S. Rosner, "1 Corinthians," In Beale, G.K. & Carson, D.A., eds.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Use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2007), 701.

24) 칼빈의 주장과 달리, 바울은 LXX만을 따르지 않고 MT도 따른다.

바울의 이사야 예언을 ‘곡해’ 혹은 ‘변형’한 이유에 대한 칼빈 자신의 설명을 들어보자.²⁵⁾

이런(‘곡해’ 혹은 ‘변형’) 문제에 있어서 사도들이 까다롭게 나오지 않았다고 본다. 즉 사도들은 ‘단어’보다는 ‘내용’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자신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성경에서 한 구절 인용하는 것으로 만족했을 뿐이다.

칼빈은 신약 기자의 구약 인용에 있어서 단어와 표현의 차이는 유사한 내용의 전달에 비추어 볼 때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고 본다.

칼빈의 설명을 계속 들어보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더라”고 자신의 말을 덧붙이는데, 이것은 그 뜻을 보다 명백하게 설명하려는 뜻에서 였다. 그는 선지자의 가르침과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무 것도 덧붙이지 않았다.

칼빈이 볼 때, 바울은 이사야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한에서 자신의 말을 고전 2:9에서 덧붙일 수 있었다.

칼빈의 자세한 설명을 계속 들어보자.²⁶⁾

25) 칼빈,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주석』, 361.

26) 칼빈,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주석』, 361.

바울이 이사야와 얼마나 철저하게 일치하는가 하는 점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구절에서 그는 복음의 가르침을 다루면서 그것이 인간의 이해를 능가하는 것으로 말한다. ...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경이로운 은총을 곰곰이 생각하고서 뉘를 잃은 사람처럼 “그거야말로 금시초문이구나!”하고 소리치는 것처럼 ... 바울 역시 본 절을 멋있게 자신의 이론에 적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에 베푸신 특수한 은혜가 이 세상의 수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말한다.

따라서 이사야와 바울의 말이 동일하지 않을지라도, 의미의 진정한 차이는 없다는 것이다.²⁷⁾

칼빈은 바울의 이사야 예언 변형과 관련하여 마지막 문제를 제기하고 답을 준다.²⁸⁾

여기서 남은 문제는 선지자가 일시적인 성격의 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바울이 영적 복에 적용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선지자는 여기에서 눈으로는 비록 당시의 상황을 보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그 은혜의 ‘원인’(즉 하나님의 은혜)을 바라보는 것으로 말할 수도 있다. ... 선지자가 외적인 구원과 이 세상의 혜택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눈을 더 높이 들어 주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한

27) 칼빈,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주석』, 94. Grosheide는 바울의 진술이 그가 인용한 구절의 원래 의미에 합당한가라는 질문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고전 2:9는 ‘왜냐하면’으로 시작하지 않고 ‘그러나-와 같이’라고 시작하기 때문이다. Grosheide도 고전 2:9에서 바울이 의미한 바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이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다고 봄으로써 기독교론적 의미를 찾는다. Grosheide, *Commentary 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66-67.

28) 칼빈,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주석』, 361.

일(예. 은혜로 양자됨과 영생)을 파악한다.

칼빈은 이사야가 예언한 일시적 복을 바울이 영적인 복으로 변경한 것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다. 칼빈은 이사야가 일시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둘 다 예언했고, 바울은 이사야에게 다소 암시적으로 나타난 영적인 복을 더 부각시켰다는 논리로 설명한다. 즉 칼빈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외형은 물론이거니와, 그 원인인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사야와 바울은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으로 전개하는 논증’ 방식을 따른다고 본다.²⁹⁾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에 주목해 보자. 칼빈이 이사야와 바울 사이를 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의 언급하지 않은 점은 의아하다. 칼빈은 바울의 ‘변형’의 이유를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도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을까? 아니면 칼빈이 사 64:4와 고전 2:9는 예수님과 무관하다고 보았을까? 칼빈이 소홀히 했던 그리스도 중심적 혹은 그리스도 완결적 해석을 바울은 시도했다. 사 64:4의 문맥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은밀함과 관련되는데, ³⁰⁾ 사 64:1-2의 신적 개입에 대한 탄원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대적에 대한 심판도 나타난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사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은밀함과 신적 개입에 대한 간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명백

29) 칼빈,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주석』, 361. 94. Garland는 바울이 사 64:4를 ‘종말 시대의 구원’으로 파악한 것으로 본다. Garland, *1 Corinthians*, 97.

30) 사 63:15-19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 애가처럼 말한 단락인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에 홀로 고립되어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전능과 긍휼을 거두어 버리셨다는 불평이다. 불평하던 이사야는 이제 사 64:1-5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치고 자기 백성을 도와주시려 하신다고 요청하고 있다. 자기 백성을 도우셔서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열방이 알게 해 달라는 내용은 이사야에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하나님의 이런 개입의 조건이 사 64:4-5에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신뢰하는 것이며 기쁘게 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죄악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대로 있는 한 하나님의 이런 복된 개입은 불가능하다. J. 오스왈트, 『이사야』 (NIV적용주석;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7), 896-97.

히 성취되었다(고전 2:8).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새로운 맥락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재조명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지혜이시고,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분이다(고전 2:7).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고전 2:9e).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다. 이제 성숙한 성도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전 2:16). 고린도교회의 자만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바로 이 마음을 가져야 했다.³¹⁾

나오면서

칼빈의 신학은 철저히 성경에 기초하고 있다. 이를 그가 『기독교강요』에서 성경을 6, 804회나 인용한 데서 알 수 있다. 그는 성경을 단순히 인용하는 차원을 넘어,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여 얻은 깊은 신학적 통찰력을 제시했다.³²⁾ 칼빈은 MT를 LXX보다 더 권위 있게 본다. 그는 신약과 그 안에 인용된 구약 본문 사이의 표면적인 차이에 주목 한다.³³⁾ 그 다음 그 차이를 구약과 신약의 ‘본질적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설명한다. 이런 예가 칼빈의 주석에 자주 나타난다(예. 마 4:14-16의 사 9:1-2 사용;³⁴⁾ 히 10:5의 시

31) Ciampa & B.S. Rosner, "1 Corinthians," 701.

32) 임용섭, "칼빈의 성경해석학적 공헌." 개혁논총 12(2009), 110.

33) D.L. Puckett, *John Calvin's Exegesis of the Old Testament*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5), 92.

34) 칼빈은 마 4:14-16의 사 9:1-2 인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한다: "얼핏 보아서 마태가 이사야의 예언의 의미를 뒤바꿔서 '잘못 사용한 것 같은데' 이것을 제외하고는 이 본문의 내용은 문제되는 것이 없다." 표면적으로 볼 때, 칼빈은 마태가 사 9:1-2의 문맥을 이탈하여 즉 탈문맥적으로 인용하고 있다고 본다. 칼빈의 설명을 계속 들어보자: "그러나(이사야)선지자의 의도를 분명히 파악하게 되면 본문과 아주 잘 어울리는

40:8 사용³⁵⁾.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이 약속은 틀림없이 멸망과 절망의 구덩이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온 백성에게 확대해서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 ... 선지자가 약속하는 것은 온 교회의 전반적인 회복인 만큼 스블론 지역과 납달리 지역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 지역은 이 죽음의 그림자가 생명의 빛으로 바뀌기로 된 곳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J. 칼빈, 『공관복음 I 주석』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3), 228-29. 칼빈은 표면적인 상충과는 달리,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사야의 예언과 마태의 인용 사이에는 불일치가 없다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칼빈이 볼 때 이사야의 예언은 모든 시대의 교회에게 확대 적용되어야 하는 회복의 예언이기 때문이다. 칼빈의 설명을 계속 들어보자: "이 빛은 백성들의 바벨론 귀환 이후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완전한 광채는 의의 태양인 그리스도와 함께 마침내 솟아올랐으니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죽음의 모든 그림자는 온데간데없이 그 자취를 감추었다." 여기서 칼빈은 사 9:1-2 가출 바벨론과 예수님의 사역으로 점진적으로 성취된다고 구원 제시의 발전을 정확히 파악한다. 더 나아가 칼빈은 사 9:1-2가 예수님에게 성취되었을 뿐 아니라 신약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임도 놓치지 않는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모든 도움은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성질과 일치함이 분명하다. ... 분명히 예언자 이사야의 말은 유대 나라의 멸망과 관계된 것이었으나, 여기서는(즉 마 4:14-16) 그리스도의 은총이 구원해 주기 이전의 인류의 상태로 묘사해 주고 있다." 종합해 보면, 칼빈은 신약 본문과 그 안에 인용된 구약 사이의 표면적인 상충과 탈문맥성을 지적한 후에, 이면적인 내용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볼 때 '약속과 성취'라는 관계로 그 두 본문이 상호 연관됨을 밝혀서 해결하려고 했다.

35) 다윗의 시인 시 40:6-8을 인용한 히 10:5-7을 설명할 때, 칼빈은 히브리서 기자가 몇 가지 점에서 시편의 본래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거나 왜곡했다고 보았다: 첫째, 히브리서 기자는 다윗이 '모든 선택된 자들'에 대해서 말한 것을 단지 '그리스도'에게만 국한시킨다. 둘째, 히브리서는 율법이 제정한 '희생제물의 폐지'를 다룬 반면, 다윗은 단지 '희생제물이 참된 예배와 비교하여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했을 뿐이다. 셋째, 상이한 해석이 생긴 이유는 MT를 부적절하게 그리스어로 옮긴 LXX에 있다고 본다(예. MT에는 없는 '몸'이 LXX(Brenton 역에는 있지만, Rahlfs 역에는 없음)에 있고, 히브리서 기자는 10:5에서 '몸'을 예수님에게 적용시킴). 그런데 칼빈은 히브리서 기자가 LXX를 따라서 MT에 없는 표현과 사상을 추가한다고 해서 서로 모순된다고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시인이 의미하는 모든 요점을 밝히고 설명하려고 뚜렷하게 계획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단지 그리스도에 의해서 단번에 드린 제사가 모든 다른 제사들을 폐지하게 했음을 말했다. 그리고 그는 덧붙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몸이 준비되었는데, 이는 이 몸을 드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음을 말했다." 여기서도 칼빈은 신약과 그 안에 인용된 구약 사이의 표면적인 곡해나 오용이라는 문제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결하여 연속성을 강조하려고 애쓰고 있다. J. 칼빈, 『시편 II 주석』

칼빈은 구약 본문을 가지고 기독교론적 해석을 무분별하게 하지 않고, 대신 구약 본문의 역사적-언어적 분석을 통해서 의미를 밝힌 후 기독교론적 해석을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했다.³⁶⁾ 사실 구약의 한 절 마다 기독교론적 의미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한다면 기독교론적 해석에 대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eisgesis'가 될 것이다.

칼빈이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변호하면서(구약 선지자에게 암시적이었던 내용을 신약 기자가 명시화했다는 논리에 근거함) 기독교론적 해석을 신중하게 한 것은 비판 받을 일이 아니다. 그러나 칼빈이 기독교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구약 본문을 적극적인 해석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신약 저자의 구약 사용 시에 발생한 변형의 이유를 '기독교론적'(Christological) 혹은 '기독교 완결적'(Christotelic)으로 설명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평가할 수 있다.³⁷⁾ 이 아쉬움을 충족시키는 것이 칼빈의 후손의 몫인 이유는 신학은 발전하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시대를 친히 자신의 인격과 사역으로 계시하셨던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역을 계승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구약에는 희미하게 계시되고(이 세상의 지식을 따르는 불신자에게는) 감추어져 있던 더 영광스러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성취하고 계심을 송영하자.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3), 273-74.

36) 양신혜, "칼빈의 성경에 대한 이해," 칼빈 연구 7(2010), 195-96.

37) 칼빈은 마 4장과 히 10장에서 이런 시도를 했다.

참고문헌

- 바레트, C.K. 『고린도전서』. 국제성서주석. 한국신학연구소, 1985.
- 양신혜. "칼빈의 성경에 대한 이해." 칼빈 연구 7(2010), 177-98.
- 오스왈트, J. 『이사야』. NIV적용주석. 성서유니온선교회, 2007.
- 임용섭. "칼빈의 성경해석학적 공헌." 개혁논총 12(2009), 109-150.
- 칼빈, J.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주석』. 성서교재간행사, 1993.
- 칼빈, J. 『공관복음 I 주석』. 성서교재간행사, 1993.
- 칼빈, J. 『시편 II 주석』. 성서교재간행사, 1993.
- 칼빈, J. 『이사야 IV 주석』. 성서교재간행사, 1993.
- Blomberg, C.L. *1 Corinthians*.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 Zondervan, 1994.
- Ciampa, R.E. & Rosner, B.S. "1 Corinthians." In Beale, G.K. & Carson, D.A., eds.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Use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 Baker. 2007), 695-752.
- Frid, B. "The Enigmatic ΑΑΑΑ in 1 Corinthians 2.9." *New Testament Studies* 31(1985), 603-611.
- Garland, D.E. *1 Corinthians*.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 Baker, 2003.
- Godet, F.L. *Commentary on First Corinthians*. Grand Rapids : Kregel Publications, 1985.
- Grosheide, F.W. *Commentary 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NICNT. Grand Rapids : Eerdmans, 1984.
- Puckett, D.L. *John Calvin's Exegesis of the Old Testament*. Louisville :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5.
- Thiselton, A.C.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NIGTC. Grand Rapids :

Eerdmans, 2000.

Witherington 3, B. *Conflict and community in Corinth: a Socio-Rhetorical Commentary on 1 and 2 Corinthians*. Grand Rapids : Eerdmans, 1995.

한국교회 설교는 어떠했을까?

- 한국교회에서의 설교, 그 역사와 평가 -

이상규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목차

1. 시작하면서 | 62
2. 한국 장로교회 설교의 역사적 개요 | 64
3. 반성과 평가: 한국교회 설교의 문제와 과제 | 93